



출범 후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유국희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인사를 드려야 하나 코로나19의 기세로 인해, 아쉽지만 영상으로 새해 인사를 대신합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원자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호랑이해입니다. 용맹과 강인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와 같이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에 힘찬 기운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자력의 이용에 있어 안전은 원자력산업과 연구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하시는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원자력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올 한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 후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첫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객관적인 과학을 바탕으

로 마련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규제를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또한, 국민께 신뢰받는 규제기관이 되기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보공개와 소통강화를 위한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산업현장에서도 국민과 소통을 위한 새로운 노력들이 요구될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진솔한 소통이 중요한 만큼, 소통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산업과 연구 현장에 계신 여러분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해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빼놓지 않고 귀담아듣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노력하는 한해를 만들어갑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풍성하게 이뤄지는 한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KIF**